

연애, 그 복잡함에 대하여

FALL IN LOVE

밴드 크라잉넛이 노래했다. “사랑은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예쁜 거지. 잊으려면 잊혀질까. 상처받기 쉬운 거야.” (닥쳐!)”

녹아 내릴 것 같은 달콤함에 취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하는. 그 사람 없이는 죽고 못 살겠다가 그놈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게 하는 인류 최대의 과제, 연애. 이번 별별신문 14호에서는 언니들의 연애 얘기를 들어보았다.



GOOD

Q. 이럴 때 내 남자, 사랑스럽다!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정말 새로운 모습을 봤어. 나는 막 너무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척척 해결하더라고.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싶더라. 정말 고맙고 든든했어. (복희, 37세, 5년 차 연애 중)

글쎄, 특별히 이래서 좋다 그런 게 있을까? 커다란 선물을 줘서,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일 끝나고 그냥 저녁에 커피숍에서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는 평범한 일상 같은 거. 그 속에 내가 있고 이 속에 네가 있구나. 지금 내 옆에 네가 있다는 거. 그런 거지 뭐.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사진 | 영화 [만추]의 장면들

WHAT HE KNOWS

Q. 내 남자는 나의 직업을, 안다? 모른다?

나는 주로 업소에서 만났어. 손님이 애인이 된 케이스? 속이고 만나면 오래 못 가더라고. 근데 누굴 만날 때 돈이 개입이 되면 안 좋더라. 내가 금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받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섹스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면 내가 피곤할 때는 안 하면 그만이니까. (주희, 40세, 싱글)

난 한번도 말한 적 없어. 그걸 왜 말해? 일하는 건 당연히 무조건 숨겨야지. 일하다 만난 남자라면 몰라도.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절대절대 그건 숨겨야 돼. (유나, 29세, 2년 차 연애 중)

난 다 갔어. 동대문 옷 가게나 노래방 카운터 본다고 둘러댄 적도 있긴 한데, 숨기고 만나니까 거짓말할게 너무 많더라. 밤에 없어지는 이유, 통화 안 되는 이유. 또 남친이랑 내 친구들 만나게 해줄 때도 뽀록 날까 봐 애들 단도리 시켜야 되고 말조심해야 되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 평소 일할 때도 남자들한테 맘에 없는 소리하고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남친한테 까지는 그러기 싫어.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BAD

Q. 이럴 땐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음!!

현실감각 떨어질 때?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단칸방에 라면만 먹어도 좋아.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매일 라면만 먹으면 질려 할 거면서.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줬더니 싱겁다느니 짜다느니 잔소리할 때 진짜 짜증나지. 가끔은 진짜 ‘네가 차려먹어!’ 그러고 확 밥상 엎어버리고 싶어. (복희, 37세, 5년 차 연애 중)



내 남자에 대한 달콤달콤한 얘길 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 몇 년을 지지고 볶아왔던 이 언니들에게 연애란 생활에 가까웠다. 이 세상에 '그' 밖에 없는 듯 불타오르는 열정의 시절을 지나 못 보일 꼴 다 보이며 신뢰가 쌓인 뒤 찾아오는 안정감도 꽤나 달달한 듯 했다.

언니들의 연애는 어떠하신지?

[용]

별별신문 이용 안내 (원고료 지급)
유흥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으신 다양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eloom2003@naver.com
010-8230-6279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 바 닥 뉴스



파주 용주골 재개발, 대구 자갈마당 폐쇄 요구, 성매매 장소 제공자 공동고발 :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 변화 예감

파주시 주민들은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자갈마당’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더불어 업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과 여성긴급지원 조례 제정도 대구시에 주문했다. 전북 지역에서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역시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성매매 여성 행진시위

프랑스 정부에 성구매자 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도보시위에 나섰던 전직 성매매 여성 로장 이세(57)가 10월 12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 도착, 8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세는 22년간 성판매를 했으나 2009년부터 성매매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세는 "성매매는 권리가 아니다. 아무도 여자를 사거나 팔 권리가 없다"며 "우리가 성매매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손님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의 자녀들도 마지막날 도보 행진에 동참했고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끝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엄마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세 언니 파이팅!! [숨]